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인사청문회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전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해야 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가 이들을 검증할 수단이 없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헌법상 기관뿐 아니라 각 부 장관과 기관장들도 인사 청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이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었다. 업무 능력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도 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여 명의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부동산 의혹, 자녀 이중국적, 논문 표절, 병역 회피 의혹 등으로 낙마하기도 하였다.

인사청문회 제도 보완 필요하다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은 중요하다.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따르라고 할 것인가? 이는 중요한 검증 기준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청문회 운영을 보면 답답한 마음뿐이다.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이들의 신상 털기에 주력해 왔고 후보 망신 주기, 흠집 내기로 변질되어 온 것이다. 특히 후보자 자신보다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신상까지도 무분별하게 털리면서 개인정보 보호 및 기본권 문제까지도 훼손하는 경우가 있었다. 굳이 가족 정보까지 필요하다면 비공개적으로 회의를 전환하여 따로 심의하면 될 터인데... 선진적인 제도라는 인사청문회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정치의 선진화가 민주주의 제도의 선진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 여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야당은 간혹 언론에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한다. 여당 역시 국회 차원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 후보자를 보호하는 데만 급급하다. 이는 여야가 뒤바뀌어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바뀌어

가 누구를 비난하고 탓할 일도 아니다. 둘째, 사전 검증의 문제다. 사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원조 격으로는 미국의 인준 제도를 들 수 있다. 그들은 18세기 말부터 청문 제도를 만들어 의회에 막강한 견제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행정부는 의회에서 지적받지 않기 위해 후보자를 선발할 때부터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친다. 백악관 인사 팀뿐 아니라 연방수사국과 국제정보 등의 엄격한 사전 조사를 통과한 자만이 인준 청문의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검증에만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물론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 뒤늦게 공개되어 낙마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 후보자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사전에 여야 간에 협의를 하기도 한다. 장기간 소요로 인한 업무 공백과 비효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준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비율이 2~3%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서둘러 본거지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전 경기를 통해 충분히 역량이 검증된 선수를 내보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인사청문 제도의 맹점이다. 우리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

지 못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 이전에 낙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신 사퇴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누구라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야당은 이리나저리나 어차피 임명권자가 임명할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신상 털기'와 '모욕 주기'로 일관한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도 고의로 협조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여당이나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인사청문 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다. 민감한 자료는 최대한 제출을 거부하고 의혹 제기에는 모른척으로 일관한다.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후보자의 대변인을 자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원들은 부적절한 질문과 언사로 국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6월 제21대 국회가 출범하였다. 앞을 내다본 20대 국회에 대한 반성으로 21대 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 이는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본회의에서 능력과 업무 중심으로 검증하는 새로운 제도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종교칼럼

칸트의 시간표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독일의 철학자 칸트(1724-1804)는 가족 세공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느 날, 칸트는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께 한 장의 종이를 들고 나타났다. "아버지,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아버지는 칸트로부터 종이를 받아 들고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그 종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들이 순서대로 적혀 있었다. "저는 이제부터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같이 시간을 정하고 그대로 실천하겠어요."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대로 실천을 할 수 있겠니?" "꼭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칸트는 아침 다섯 시 반에 일어나 산책, 여섯 시에 학교의 예습, 일곱 시에 아침 식사, 여덟 시부터 오후 두 시까지는 학교생활, 학교에서 돌아

오면 세 시까지 목을 씻고, 다섯 시까지는 복습, 여섯 시까지는 어머니의 심부름, 여섯 시에 저녁 식사, 일곱 시부터는 아버지의 피세공 심부름, 아홉 시에 독서와 일기 쓰기, 열 시에 취침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칸트와 과연 이 시간표대로 일과를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하였지만 칸트는 조금도 어긋지 않고 꾸준히 지켜 나갔다. 훗날 마을 사람들은 칸트가 산책 나가는 것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한 칸트는 훗날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었다. 계획은 세우기도 어렵지만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한다. 원불교 대선종사(김대거, 1914-1998)께서는 "계획 세워 큰일을 할 때에는 천(天)·지(地)·인(人)이 합해서 되는 것이니 항상 선후를 보아서 순서 있고 여유 있게 처리하라. 대종사(원불교 교조, 1891-1943)께서는 영산 방언공사를 할 때 한 달 전부터 '모든 생령들은 다 자리를 옮겨 가거라.' 하고 미리 통보해 다치지 않도록 하신 일이 있나니, 여기에는 만 생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도하기 위한 성자의 큰 뜻이 담겨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공사(公事)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나니, 일을 할 때에는 열 가지 계획을 세워두고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 두 번째가 안 되면 세 번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여유를 가지고 법 있고 순서 있게 처사하라"며 여유에 대하여 말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병행 수업, 교차 수업, 등교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계획 있는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방학이 시작되었다. 팽팽한 긴장 속에 혼란했던 학교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여름 방학에 들어간다니 마음마저 여유가 생긴다. 물론 학원 수업이다 과외다 하여 학교 공부에서 완전히 떠나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학은 기다려지고 기다린 만큼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생기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러나 방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쉬고 즐기다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여유로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학교에 다니던 때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절도 있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이 좀 약한 학생들은 운동을 해서 체력을 보강해야 한다. 고학년일수록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이렇듯 계획을 세워 실행할 때 주위 사람들은 혹사라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못한다고 하여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이동의 제한은 있었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가능하다면 3-4일 정도는 공부와 완전히 떠나 타지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뵙든지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한 때를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휴식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하다. 어려울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고 창창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했다. 집 한 채도 몇 백년 걸려 짓는 집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길게 보고, 그러나 촘촘히 이어가야 한다. 아직 방학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실행 가능한 계획들을 세워서 실속 있게 보내고 관심과 칭찬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 지켜 나가는 여름이 되었으면 한다.

기고

영광 '안심 해수욕장'에서 행복한 피서를



홍석봉
영광부군수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피서철을 맞아 내놓은 정책이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다. 해수욕장 이용객 밀집도를 낮춰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전남도에서는 12개 해수욕장에 우선 적용했는데, 영광군에서는 지난 7월 10일과 18일 각각 개장한 가마미 해수욕장과 송이도 해수욕장이 그 대상이다. 해수욕장을 개장할 경우 무엇보다 물려드는 방문객의 안전과 코로나19 지역 사회 감염의 선제적 차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영광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에 예약제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내심 이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영광군의 62개 섬 중 가장 아름다운 섬 낙월면 송이도는 소나무가 많고 사람의 귀를 달아 송이도라 불린다. 송이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몽돌 해수욕장은 1km 길이의 해변에 펼쳐져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신비의 바닷길은 진도만이 아니라 영광에서도 볼 수 있다. 송이도에는 간조(썰물) 시 대각이도까지 모래등이 나타나는데, 길이 2.5km 폭 7km로 경운기가 왕래할 정도로 단단하다. 겨울철에 대갯조개, 여름철에 백합 등을 잡을 수 있어 주민들의 수입원이 되고 송이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백합 캐기 체험도 해 볼 수 있다. 이들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 개설 사

이트 '바다여행'을 통해 방문객들의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며, 공무원 9명, 유관기관 7명, 민간단체 14명, 대학생 아르바이트 6명 등 모두 36명이 안전 관리 및 자체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가마미 해수욕장은 정자 12개, 몽골텐트 20개, 테크 26개, 카라반 10개, 사각 평상 5개, 파라솔 20개만 준비해 하루 700명으로 방문객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는 물론 화장실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도 실시하고 있다. 송이도 해수욕장에는 정자 8개, 파라솔 5개, 텐트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 하루 100명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선착장인 영산면 향화도 여객선 매표소에서 발열 검사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섬 주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영광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속에 가마미·송이도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은 37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00여 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피서를 미뤘던 가족 단위 관광객들

이 안전한 가마미와 송이도를 찾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영광군은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를 다른 관광지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내 유명 관광지인 칠산타워, 노을전시관 등에 방문객이 지나치게 몰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크게 바뀌고 개인 위생만이 아니라 공동체, 더 나아가 지역, 국가 차원의 방역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요즘이다. 해수욕장은 사람들의 밀집도가 높은 만큼 이용객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감염병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로 인해 방문객이 오히려 늘면서 해수욕장 주변 민박집, 음식점, 마트 등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있어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코로나19로부터 지역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지키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社說

자치구 경계 조정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광주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자치구 간 경계 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2년 전부터 추진해 온 경계 조정 작업에 탄력이 불을 지주목 된다. 광주일보는 최근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치구 간 경계 조정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여덟 명 전원이 자치구 간 경계 조정에 찬성했다. 조정 방안으로는 광주시가 지난 2018년 연구 용역을 통해 마련한 세 가지 대안 중 중폭 조정안을 여섯 명의 의원이 선호했다. 이는 북구 다선거구(문화·풍향·두암1~3·석곡동)를 동구로,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각각 편입하는 안이다. 경계 조정은 광주 5개 자치구 및 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준비기획단에서 개편 대안을 마련하고, 주민 공청회와 기초 의회 검토 과정을 거쳐 광주시의회를 통과하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2년 전에도 광주시가 대안을 마련해 시민 설문까지 거쳤지만

일부 주민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자치구 경계 조정은 갈수록 커지는 인구 및 행정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단적으로 구도심인 동구 인구는 지난 3월 기준 9만 8628명으로 북구(43만 3006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인구 감소로 선거 때마다 의석 수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광주 국회의원 전원이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미가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는 내년 6월 이후에는 자치구 경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권과 광주시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시민의 입장에서 광주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 달 새 물난리 세 번 이쯤 되면 관재 아닌가 (官災)

광주시 북구 중흥3동 주택가 주민들이 한 달 사이 세 차례나 반복된 침수 피해를 입었다. 물난리가 난 주택가 주변에선 재개발 방식으로 1556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평생 이곳에서 살았지만 물난리를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여름에만 한 달 사이 세 차례나 침수 피해를 당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광주에 시간당 최고 53.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그즈께야 하는 수 없었다지만, 지난 10일과 13일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강수량에도 침수 피해를 입었으니 당국을 원망할 만도 하다. 광주 북구청은 침수 피해 발생 원인을 재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우수관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기 고장까지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두 차례 물난리 후 북구청과 공사 업체는 우수관을 600mm짜리로 교체하고 배수펌프 4대로 새로 배치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다. 하지만 그제 집 중후우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번 물난리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애초에 우수관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물난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란 비판이다. 비록 충분한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첫 번째 침수 이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했다면 2·3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란 얘기도 있다. 이는 주민들이 관재(官災)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에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라도 공사로 인해 지형 변화가 생기면 물이 막히면 언제든 물난리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시공사는 원칙을 지키는 공사와 함께 수시로 현장 점검하고 구청 등 관계기관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스포츠는 숫자의 향연이다. 경기의 승패는 전광판에 뜨는 숫자에 따라 결정된다. 성적도 숫자로 기록된다. 숫자는 유니폼에도 새겨져 있다. 선수들은 저마다 자신의 숫자를 유니폼의 가슴과 등에 붙이고 그라운드를 누빈다. 특히 등번호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속엔 포지션과 플레이 스타일이 담겨 있다. 때로는 달고 싶은 우상에 대한 존경심을 담은 경우도 있다. 선수 운영의 폭이 넓은 야구는 등번호 선택이 자유롭다. 이에 비해 11명의 선수만이 그라운드에서 뿜 수 있는 야구는 골키퍼, 수비수, 투수, 포수 등 포지션에 따라 일정한 번호를 갖는다. 물론 선수들이 달지 못하는 번호도 있다. 팬들을 위한 번호 12번이다. 월드컵 축구가 열리면 국가 대표팀을 응원하는 국민 모두가 '12번 선수'가 된다. 현대 스포츠에서 팬들은 단순한 관중에 머무르지 않고 선수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기고 있을 땐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지고 있을 땐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내게 하기

다행히 프로야구의 경우 팬들이 돌아왔다. KBO가 관중석 10%의 규모로 입장을 허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가 더 뜨거워졌다. 프로축구 K리그도 내일부터 관중들이 입장한다. 야구장과 축구장에 드디어 '12번 선수'가 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KIA 챔피언스필드나 광주FC 전용구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광주시가 오는 8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KIA는 8월 4일부터, 광주FC는 8월 16일 홈경기를 갖는다. 12번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구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